



아직 1경기가 남았고, 희망은 충분하다. 손흥민(가운데)이 15일(한국 시간)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3개 부문을 싹쓸이했다. 23일 노리치시티와 EPL 최종전에서 골을 넣고 득점왕으로 시즌을 마친다면 화룡점정, 금상첨화다. 사진출처 | 토트넘 홋스퍼 페이스북

팬들 선정 ‘올해의 선수’ 3관왕 토트넘서 가장 사랑받는 손흥민

“이곳에서 뛰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
득점왕·UCL출전권 올인 “끝까지 싸울 것”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또 수상했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홈경기에서 번리를 1-0으로 꺾었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시간 상대의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PK)을 해리 케인이 성공시킨 데 힘입어 21승5무11패, 승점 68로 아스널과 4위 경쟁을 이어갔다.

이날 4경기 연속골과 함께 리그 22호 골을 노렸던 손흥민은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했으나 큰 선물을 받았다. ‘토트넘 올해의 선수(One Tottenham Player of the Season)’,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One Tottenham Junior Members’ Player of the Season)’, ‘서포터스 선정 올해의 선수(Official Supporters’ Clubs Player of the Season)’를 싹쓸이했다. 이는 2018~2019, 2019~2020시즌에 이은 개인통산 3번째 토트넘 팬 선정 올해의 선수 3관왕 등극이다.

올 시즌 모든 홈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손흥민은 독보적 활약을 보여줬다. 리그에서만 21골·7도움을 올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기록까지 더하면 공식경기 22골·8도움이다.

손흥민은 “이 경기장에서 뛰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항상 EPL에서 뛰는 꿈을 꿔다. 이 곳에서 뛰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다. 엄청난 팬들 앞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3일 노리치시티와 EPL 최종전(38라운드)을 앞두고 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에 ‘올인’하고 있다. EPL에선 4위까지 UCL 무대로 향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과 아스널이 경쟁 중이다. 토트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탈리아)은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UCL 티켓”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득점왕의 향방도 뜨거운 관심사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선두는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22골·이집트)다. 다만 변수가 생겼다. 살라는 지난 주말 첼시와 잉글랜드 FA컵 결승 도중 부상을 입고 전반 33분 만에 교체됐다.

맨체스터시티(승점 90)와 리그 우승을 다투는 리버풀(승점 86)은 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사우샘프턴(18일·원정)~울버햄튼(23일·홈)과 차례로 격돌한다. 그러나 살라의 출전에는 물음표가 달려있다. 리버풀은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UCL 결승전을 위해 핵심 공격수에게 회복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한다. 리버풀 위르겐 클롭 감독(독일)도 “주중 경기는 확인할 수 없어도(살라의) UCL 결승 출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손흥민이 이미 챔피언십(2부)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해 22호 골 이상을 만들고 살라와 동률이 되면 공동 득점왕에 오른다. EPL은 출전 횟수와 상관없이 득점만으로 순위를 가린다.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다음주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는 글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생애 첫 주연 영화 ‘오마주’ 26일 개봉…배우 이정은의 화양연화

“모든 장면마다 등장…두렵고 떨리죠”

조연일 땐 방해될까 모니터도 조심
이번엔 촬영내내 감독과 대화 실감
오마주 하고싶은 선배는故 김영애
전성기? 현장 가기전 아직도 긴장
‘오늘도 잘해내자’ 주문을 외우죠



배우 이정은(52)의 ‘화양연화’(花樣年華·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기생충’을 시작으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그리고 현재 방송 중인 tvN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출연작마다 흥행 성공을 거뒀다. 40대 노처녀에서 70대 할머니까지 나이 불문, 영역 등 한계를 두지 않으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오고 있다. 덕분에 26일 개봉하는 ‘오마주’(감독 신수원, 제작 준필름)로 생애 첫 장편영화 주연까지 꿰찼다.

‘오마주’는 한국 1세대 여성감독의 필름을 복원하게 된 중년의 여성감독을 통해 영화계 여성들, 나아가 일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다. 이정은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블록버스터 영화 출연도 마다하고” 선택했다. “작품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그는 “변함없이 의미와 재미를 주는 연기를 해나갈 것”이라며 웃었다.

-첫 주연으로 나서게 된 소감은?

“30분짜리 단편영화의 주인공은 해봤지만 장편영화는 처음이에요. 개봉을 앞두고 주연이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 나요. 흥행에 대한 무서움도 있어요. 거의 모든 장면이 제가 등장하는데, 제가 만든 인물에 관객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궁금해요. 사실 조연인 경우에는 감독님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작업에 방해가 될까 모니터를 보는 것도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번에는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모니터링 시간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느낌이 남다를 것 같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영화를 놓지 않았던 여성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물론 과거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졌지만, 영화계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현장에 나가



배우 이정은이 첫 장편영화 주연작 ‘오마주’를 26일 극장에 내건다.

사진제공 | 준필름



▲1970년 1월23일생 ▲1988년 한양대 연극영화과 졸업 ▲1991년 연극 ‘한여름 밤의 꿈’으로 데뷔 ▲2018년 tvN ‘미스터 션샤인’ 제26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2019년 KBS ‘동백꽃 필 무렵’ 연기대상 여자 우수상, JTBC ‘눈이 부시게’로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조연상 ▲2019년 영화 ‘기생충’ 제40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2020년 ‘기생충’ 제26회 미국배우조합상 영화부문 앙상블상 ▲2022년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tvN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오마주’

면 여성 스태프들이 정말 많아져 든든하고 깊은 동지애도 느껴요.”

-‘오마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고 김영애 선생님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늘 존경해요. 저에게 처음으로 ‘끝까지 연기하라’며 용기를 주셨죠. 선생님께서는 눈 감으셨을 때 저는 외국에서 촬영 중이었는데, 그게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어요. 선생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영화계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잖아요. 서로에게 응원과 용기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많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 ‘내가 죽던 날’과 ‘소년심판’을 함께 했던 (김)혜수 씨. 늘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동료들에게 베푸는 그를 보며 정말 많이 배워요.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도 촬영 때 혜수 씨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함께 여행도 했어요. 혜수 씨가 오랜 시간 톱스타로 살다 보니 국내 여행을 자주 안 해봤더라고요. 함께 여행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노회경 작가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옵니버스 드라마의 첫 주자라 부담이 컸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어요. 상대역 차승원 씨도 첫 방송이 나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화를 해왔어요. 노 작가님의 드라마를 하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대충’이라는 단어는 작가님에게 없거든요. 대본만 읽더라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돼요.”

-한국 콘텐츠 인기의 중심에 영화 ‘기생충’이 있다.

“최근 해외 한인 배우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한국인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한국 콘텐츠와 배우들이 인기를 끈 덕분에 현지 배우들도 살인자 같은 장르적 캐릭터나 주변 인물이 아닌 평범한 인물 자체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생충’이 그 도화선 역할을 했다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죠.”

-전성기라는 걸 스스로 실감하는가.

“가장 좋을 때 가장 큰 불안도 온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늘 떨리고 긴장돼요. 연기하는 모든 순간이 고비라고 생각해요. 늘 스스로에게 ‘힘내자, 오늘도 잘 해내자’고 되뇌어요. 앞으로도 늘 그렇게 연기할 거예요.”

이승미 기자 smilee@donga.com

이정훈 “12번홀 이글 후 우승 가능성 생각…가족과 함께 해 더 꿈만같다”

“타수 차 나고 경쟁한 선수 많아
좋은 모멘텀만 유지하려 했는데
믿기지 않는 우승…감사할 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첫 승 이후 부진에 빠졌던 터라 2년 연속 우승이 더 값지게 다가왔다. 한국인 최초 PGA 투어 타이틀 방어라는 신기원도 열여 기쁨은 더 크다.

16일(한국시간) 끝난 AT&T 바이런 벨슨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정훈은 “마치 신이 도와주기도 하는 것처럼 이곳에만 오면 항상 마음이 편하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꿈만



이정훈(가운데)이 AT&T바이런 벨슨에서 우승한 뒤 텍사스를 상징하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웃고 있다. 매키니(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같다. 너무 기쁘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4라운드 시작 전에는 우승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다. 타수 차이도 좀 나고 워낙 경쟁한 선수들이 많아 그냥 좋은 모멘텀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털어놓은 뒤 “2번 홀에 20미터 정도 되는 롱퍼트가 들어가면서 모멘텀이 생긴 것 같다. 계속 버디도 나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던 것 같다”고 밝혔다.

“12번 홀에 이글을 하고 ‘우승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아 스윙 코치도, 멘탈 코치도 바꿨다. 지난주에는 퍼터까지 바꿨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첫날부터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 전 세계 랭킹 1위인 조던 스피스와 같이 컸는데 오히려 부담없이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경기했다”고 설명했다.

“부도님이란 아내, 그리고 아기(딸)가 현장에서 지켜봐 꼭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모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타이를 방어할 꼭 하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물론 있었는데 마음을 비운 것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서 타이틀 방어를 했고, 이 대회에서도 전설적인 선수들에 이어 2년 연속 우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